

SA, 여행사 대상 트래블마트



남아프리카항공과 남아프리카관광청은 지난 9일 여행사 및 랜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트래블 마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지 여행사·호텔·관광청 등 10여개가 참여했으며 현지 정보 부족으로 상품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많은

여행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남아프리카는 2010년 월드컵을 개최함에 따라 경기장 신·증축과 교통편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텔과 유스호스텔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여행자들이 다수 현지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현지 투어 등이 마련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관광청은 월드컵 관람객들이 짧은 시간으로 남아프리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사파리/축구시합/쇼핑을 혼합한 관광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정순 기자〉

올 여름, 마카오에 빠지다